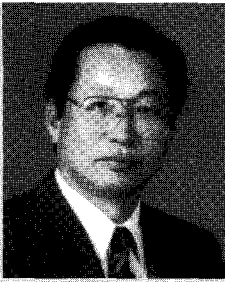


환경·위생 강조 통한 포장문화 선도 친환경 기능성 포장재 개발 주력할 터



오 응 환
미성포장산업(주) 대표이사

산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느 산업분야가 그렇듯이 빈익 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사실이며, 현재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포장 업계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연포장업계의 경우 모(母) 기업이 있는 일부 대규모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기 변화에 의해 때로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가 즐비한 것이 사실이다.

국내 포장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기치와 포장관련 군소 업체들을 포용력으로 수용, 자생의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목적으로 내실경영을 하고 있는 미성포장산업(주)(대표이사 오응환)을 찾았다.

“포장을 아름답게”라는 모토로 1967년 식품포장재 전문회사 미성산업사로 출발한 미성포장산업(주)은 1993



▲ 미성포장산업(주) 생산제품



▲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미성포장산업(주)

년 10월 14일 서울의 신당동에서 법인 설립 한 이래 1995년 7월 경기도 용인으로 이주, 지난 달로 법인전환 30주년을 맞게 됐다.

오응환 사장은 20대 중반이던 1967년, 플라스틱 성형 원료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의 일을 우연히 접하면서 포장산업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의 '포장'이라는 것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에는 난무했던 60년대 후반. 오 사장은 플라스틱이 각광받던 당시,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특수한 분야라는 매력과 무한히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착안, 연포장산업과 인연을 맺게 됐다. 미성

산업사로 6~7여년 간 식품포장재 생산을 하던 오 사장은 식생활을 개선 및 국민체력향상, 농가소득증대를 꾀하며 낙농업으로 잠시 외도하게 된다.

그러나 포장업에 대한 미련과 아름다운 포장문화를 선도해 보겠다는 그의 경영 마인드는 1987년 다시금 연포장업계로 귀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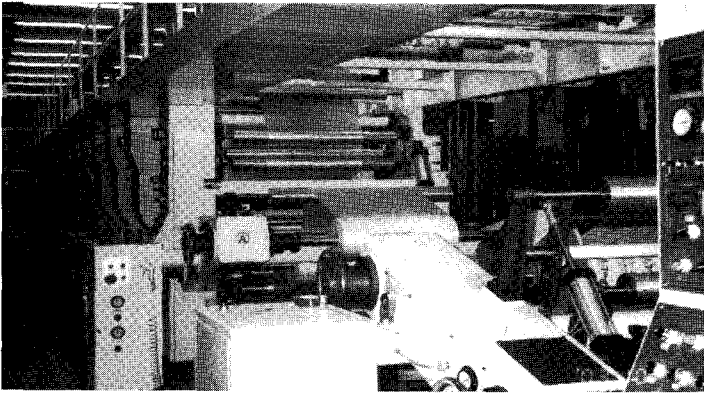
미성포장산업(주)은 1996년에는 식품포장의 위생관념을 확립하고자 G.C(모델명 : HP 5890 II PLUS)기를 도입했으며 이듬해 한국생활용품 시험연구원으로부터 Q마크를 획득했다.

특히 이태리 스키야비사에서 생산한 무용제라미네이팅

기를 도입, 인체에 무해하며 접착강도가 강해 PVDC Coated Film에 뛰어난 접착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제약, 제과, 식품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식품포장재의 잔류용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고품질로 생산하고 있다.

오응환 사장의 "작은 규모의 업체지만 프로가 되자"는 경영방침은 2001년 '전직원의 포장관리사화 추진' 방침을 통해 당시 kidp 포장관리사 25기에서 3명이 자격을 취득했으며, 앞으로도 미성은 (사)한국포장협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포장기술관리사 자격제도에 참여, 전직원이 적극적으로

Misung Pack



▲ 지난 3월에 도입한 그라비아 9도 인쇄기

로 포장전문가로 거듭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미성포장산업(주)은 롯데제과의 비스킷류, 빙과류, 롯데햄, 우유의 햄포장재를 비롯해 청우식품, 국제제과, 코스모스제과, 리리식품 등 40여 개 업체에 포장재를 공급하고 있는 등 지퍼스탠딩파우치, 레토르트파우치, 김치포장지, 김포장지, 스낵포장지, 빙과포장지, 제약포장지, 냉동제품포장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그라비아 9도 인쇄기를 도입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한 발 한 발 부응해 나가고 있다.

환경과 위생을 강조하는 오용환 사장은 포장관련 분야 뿐

아니라 늘 배우는 자세를 갖고 있는 만학도. 그는 향후 식품포장재는 더욱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생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미성포장산업(주)은 단순한 식품포장재 생산차원을 넘어, EVOH, K-PET, K-OP(산소가 투과되지 않아 신선한 제품) 등 제품 보존성 강화 기능 포장재 및 EASY FEEL(소비자가 요구하는 대로 편지성 제품) 포장재 생산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광주, 용인일대에는 포장관련 군소업체들이 즐비하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예외

일 수 없는 연포장 업체를 바라보면서 군소업체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싶다는 오용환 사장. 그는 동고동락한다는 마음과 포용력으로 작은 군소업체들을 수용하고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협회가 업계에 질서를 유지하고 포장문화를 선도하는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상품은 제품과 포장의 결합체라는 인식에서 점점 포장이 갖는 가치는 증가하고 있는 현재, 오 사장은 '포장은 한 시대 산업 평가의 잣대'라고 강조하면서 환경과 위생을 고려한 건전한 포장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새로운 사고로의 변혁을 추구하며 Innovation team을 통한 작업능률 및 영업향상을 추진하는 미성포장산업(주)은 지속적인 ISO 인증 추진과 꾸준한 연구를 통해 고급화된 상품과 신제품으로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박초혜 기자